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문화유입수용성이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와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Effect of Chinese's Sense of Rivalry toward Korea and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on National Defense Respond: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Liking for Korean Wave

이희진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Hee-Jin Lee(hjlee@handong.edu)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과 문화유입수용성이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에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와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11개 도시(7개 성소재)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695명의 중국인들을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자료분석 결과, 첫째, 한류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가간 경쟁의식이 한국과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부적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류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문화유입수용성은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mediation)로 하여 자국방어적 대응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반면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함의를 모색하며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경쟁의식 | 문화유입수용성 | 한류호감도 |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 자국방어적 대응 |

Abstract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 of Chinese's sense of rivalry toward Korea and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on national defense respond; (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the moderating effects of liking for Korean Wave.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695 Chinese people under 30, located in eleven cities of seven provinces.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hile the sense of rivalry does not negatively effect on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mong group with high liking for Korean Wave, the sense of rivalry doe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ispute resolution among Chinese with low liking for Korean Wave. Second,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shows a buffer effect between the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and the sense of rivalry toward Korea among group with high liking for Korean Wave,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th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is not significant among low group. Thus, it is prov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liking for Korean Wave is significant.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 keyword : | Sense of Rivalry | Receptiveness to Foreign Cultural Inflow | Liking for Korean Wave |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 National Defense Respond |

접수일자 : 2017년 12월 01일

수정일자 : 2017년 1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27일

교신저자 : 이희진, e-mail : hjlee@handong.edu

I. 서론

한류(Korean Wave)는 “한국적 요소를 지닌 문화 열풍으로 타국에 의해 수용되어 유행하는 한국의 문화현상”이다[1][2]. 이 한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방송, 음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한류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국가들과 함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3][4].

중국은 한류의 주요 발원지이며 한류 문화상품의 주요 소비국이다. 한국문화와 중국문화간의 문화적 근접성은 중국인들이 한류콘텐츠를 좋아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5]. 동아시아의 같은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문화상품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친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Strauhhaar와 Iwabuchi는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 혹은 문화적 친근감(cultural affinity)를 지적한다 있다[5-8].

이러한 중국에서의 한류(韓流)의 인기와 지속가능성은 단지 한류문화상품의 질만이 아닌, 양국 간의 다양한 관계적 맥락(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차원 등)과 이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관련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그 영향력을 가져왔다. 한류열풍으로 한류가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언론들은 한류(韓流)를 ‘차가운 물결’의 의미인 한류(寒流)로 표기하는 등 비판적인 관점에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2][9]. 한류로 인한 한국문화 유입이 자국(중국)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협감은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문화적 민족주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2][3]. 중국사회의 한류열풍에 대항하는 항한류(anti-Korean wave) 혹은 혐한정서는 중국사회에 한국문화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국가 간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계와 경쟁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분쟁, 그리고 최근의 사드문제 등 모두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킨 사건들이고 사드배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제체제로 까지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객관적인 타당성과 사실(진실)과 상관없이,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을 방어하는 대응을 한다면, 양국 간의 갈등은 심화될 뿐일 것이다. 국수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방어적 대응은 이후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역량을 취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에서의 한류의 활기가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 혹은 군사·외교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들 중에서 한류문화상품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경우, 타국문화유입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이고, 국가 간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한류를 이용한 양국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4].

Anderson과 Bryant는 일찍이 문화상품은 이용자의 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환경’을 구성한다고 피력한다 있다[10][11]. 한류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중국인들은 한국문화상품이 표상하는 또 다른 현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2]. 특히 한류 드라마는 이를 시청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사회의 현실, 문화, 관습 등을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한국 문화에 내재한 이념적 가치와 규범이 함께 전달할 수 있다[4][11][12].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한국사회의 현실, 문화, 관습 등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드라마가 재창출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된다[13][14].

한국 드라마는 이를 시청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13][15-17]. 직접적인 대인접촉이 아닌, 매체를 매개로한 접촉(mass-mediated contact)과 의사사회 접촉(pseudo-social contact)를 통해서도, 다른 범주의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

식을 줄일 수 있다[18][19].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경계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문화가 중국사회에 유입되는 것에 어느 정도 수용적인지가, 양국 간에 역사·군사·외교·정치·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해결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및 대응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들은 중국인들의 한류호감도에 의해서 그 양상이 어떻게 조절(moderating)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중국과 한국 양국 간의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한류가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문헌검토

1. 타문화수용성 및 경쟁심이 분쟁해결 인식 및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지, 욕구, 동기 등에 부합하여 유입된 타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Katz의 이용·충족이론에서 설명될 수 있다[4][20]. Linton은 문화수용여부와 수용 속도는 전파되는 요소의 특성 뿐 만 아니라, 수용자 자신과 함께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1][22]. 한류콘텐츠를 제작한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위해서 공감과 동일시, 그리고 자집단의 지역고유의 특성의 극복(de-provincialization)은 매우 필요한 조건이다[23]. 선행연구는 다른 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쟁심에 의하여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1][24].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쟁심과 함께, 한국문화 유입에 대한 수용정도는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이 그 분쟁을 바라보는 인식과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Straubharr은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을 “지역, 인종, 언어, 종교,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들에 근거한 전통적인 정체성과 근접한 또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생산된 상품에 지배적으로 반영된 특성”이라고 하였다[5][8]. 유세경과 이경숙은 문화적 근접성을 “유사한 시공간(視空間)과 인물 및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유사성, 가치, 규범, 인간관계가 재현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치적 유사성” 등으로 정의하였다[25].

외국인들의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는 문화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한류콘텐츠가 충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같은 유교문화권으로서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친근한 중국사회에서 더 발생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은 한류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한국인의 가치, 전통, 규범, 생활양식, 지배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한류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중국사회에 한국문화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한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경쟁심이 감소될 때,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군사·외교·역사·정치·경제적 차원)과 분쟁해결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국(중국) 이익만 고려한 자국방어적 대응이 완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2. 합리적 분쟁해결인식과 자국방어적 대응

국가 간의 군사, 역사, 경제, 외교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에 분쟁에 대처하는 양상은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중요하지만, 상대국가의 입장과 주장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은 어렵다. 국제 재판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들

의 국가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당사자 국가들이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풀어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과정에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인식을 할수록,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국(중국)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국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국방어적 대응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은 개인의 인식이 개인의 행동에 반영된다는 인지이론적 도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다.

3. 한류호감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서 한류콘텐츠 이용이 적은 중국인에 비해 한류콘텐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사회에 타문화유입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고, 합리적 분쟁해결 인식 수준도 더 유의하게 높았다고 밝힌바 있다[4]. 한류콘텐츠이용이 증가가 한류호감도를 높이는데 매우 강한 직접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국인들의 타문화유입수용성, 한국에 대한 경쟁심, 국가 간 분쟁에 대한 인식 및 대응양상 등은 중국인들의 한류호감도 수준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2].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중국인들의 대응(reactions)에 문화유입수용성, 한국에 대한 경쟁심 등이 미칠 수 있는 직접적 효과와 분쟁해결 인식(perceptions)에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 등은 중국인들의 한류호감도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기에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직·간접 경로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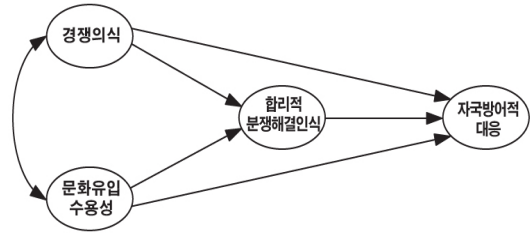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쟁의식’, ‘문화유입수용성’,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그리고 ‘자국방어적 대응’은 한류호감도 수준에 의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가?
2.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쟁의식’ 혹은 ‘문화유입수용성’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는가?
3. 중국인들의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은 중국인들의 ‘경쟁의식’ 혹은 ‘문화유입수용성’이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mediation)하는가?
4. 중국인들의 ‘경쟁의식’ 혹은 ‘문화유입수용성’이 ‘자국방어적 대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합리적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는 한류호감도 수준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moderating)되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분석을 위한 자료(data)는 설문조사(survey)를 통해서 얻은 자료이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중국의 7개성(광서성, 하남성, 산둥성, 허베이성, 사천성, 안후이성, 감숙성) 소재 11개 도시(계림시, 정주시, 오강시, 조장시, 빈주시, 복경시, 일조시, 덕주시, 바우딕시, 자공시, 박주시 등)에 거주하는 10대 및 20대 젊은 남녀들이다. 설문조사원(10명)은 재한 중국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각기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를 위한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말부터 2014년 2월말 까지 약 1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방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표본은 임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의 수는 695명이다. 전체 표본 중에서 여성(425명)이 61.2%, 남성(270명)이 약 38.8%이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5세부터 29세 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약 21.58세이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1 종속변인: 자국방어적 대응

본 연구에서는 ‘자국방어적 인식’을 “자국(중국)과 다른 나라가 역사·군사·정치 혹은 외교 차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인 상황이나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과 방어를 목적으로 자국중심적인 입장 및 대응 반응”으로 규정하였다. 자국방어적 대응 척도는 응답자들(중국인들)이 얼마나 자국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문항(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주장해야 된다, 역사분쟁 및 영토분쟁이 있을 때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주장해야 한다, 역사분쟁 또는 영토분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상대국을 비방해야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을 방어하는 자국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신뢰도는 .653 이다.

3.2 독립변인

① 경쟁의식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쟁의식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의식 척도는 이준웅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11]. 척도문항은 ‘한국이 잘살면 중국이 어려워진다’, ‘한국이 강성해지면 중국이 불리해진다’, ‘한국이 발전할수록 중국에게는 좋을 것이 없고 손해다’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척도의 각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888 이다.

② 문화유입 수용성

‘문화유입 수용성’ 척도는 타문화가 자국(중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2].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3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교류가 사회발전에 중요하다’, ‘발전된 문화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다’, ‘한국문화의 도입은 중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등이다.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며, 척도의점수가 높을수록 자국에 타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신뢰도는 .615이다.

3.3 매개변인: 합리적 분쟁해결 인식

‘합리적 분쟁해결 인식’(약칭, 합리적 인식) 척도는 자국과 다른 나라 간에 역사, 정치, 경제 혹은 외교 차원에서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국 및 상대국의 주장과 입장을 함께 고려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척도문항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문항내용을 구성하였다. 척도문항(5개)은 ‘상대국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 ‘분쟁국 간의 적극적 대화 및 소통과 양국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의 필요성’, ‘정부 이외의 학계 차원의 개입 및 대처의 필요성’, ‘국제기구(국제재판소

표 1. 주요 변수정리

척도명	변수특성				문항수
	외생변수, 내생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경쟁의식			0 외생변수		3
문화유입 수용성			0 외생변수		3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0 내생변수	0 내생변수	0 외생변수		5
자국방어적대응	0 내생변수				3
한류호감도				0 내생변수	2

등)의 개입의 필요성 및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정도, ‘세계화 시대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4][9].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과 상대국 간에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α 계수는 신뢰도는 .633 이다.

3.4 조절변인: 한류 호감도

본 연구에서 ‘한류 호감도’ 척도는 중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갖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척도내용을 참조하여 척도내용을 구성하였다[26].

척도 문항내용은 ‘한류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인해서 나는 한국에 대해 더 호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영화,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관련 장소를 찾아가서 돌아보고 싶다’ 등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한류호감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776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변수들의 경로계수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RMSEA(절대 적합지수)와 CFI 및 TLI(상대 적합지수)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 strapping)방법으로 사용하여 매개효과는 분석하였다.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방법으로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초통계 분석은 SPSS 22.0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20.0를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normality)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각 변수들의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왜도값과 첨도값을 살펴보았다. 왜도값의 범위는 -1.206-1.158로 절대값이 2미만 이었고, 첨도값 범위도 -1.091-1.375 로 절대값 7미만으로 나타나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수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최소값이 .008이고 최고값이 .400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경쟁의식	문화유입수용성	합리적 분쟁 해결인식	자국 방어적 대응
경쟁의식	1			
문화유입수용성	.003	1		
합리적 분쟁 해결인식	-.134**	.400**	1	
자국방어적 대응	.119**	-.141**	-.169**	1

2.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하다. ‘문화유입수용성’(M=3.69888), ‘한류호감도’(M= 3.6243), ‘합리적 분쟁해결인식’(M=3.38998) 이 세 척도는 척도(5점척도)의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둔 ‘자국방어적 대응’(M=2.4106) 그리고 ‘경쟁의식’(M=1.89019) 이 두 척도는 평균값 보다 훨씬 낮은 척도값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두 척도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진술한 세 척도(문화유입수용성, 한류호감도,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와 달리 ‘자국방어적 대응’ 그리고 ‘경쟁의식’ 척도는 부정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주요 척도의 평균값을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N=366명)과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N=329명)간에 비교해본 결과, ‘경쟁의식’ 척도의 평균값만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화유입수용성’, 그리고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척도의 평균값들은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 ‘자국방어인식’은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응답자의 한류호감도 수준에 의해 문화유입수용성,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자국방어인식 수준 또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한류호감도에 의한 차이는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직간접효과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표 3. 연구모형 주요척도 기술통계 및 t검증

척도명	평균 표준편차	한류호감 높은집단	한류호감 낮은집단	t값
경쟁의식	1.8019 .8802	1.7750 (.8375)	1.8318 (.9258)	-.849
문화유입 수용성	3.6988 .7227	3.8597 (.6845)	3.5198 (.7230)	6.366
합리적분쟁 해결인식	3.3899 .6484	3.5377 (.5748)	3.2255 (.6859)	6.463
자국방어적 대응	2.4106 .8643	2.3379 (.8200)	2.4914 (.9054)	-2.345
한류호감도	3.6243 1.7447			

3.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척도들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5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이었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값은 0.7이상(Bagozzi and Yi, 1988)으로 확인되어,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척도들의 집중/수렴 타당성 그리고 개념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표 4. 주요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척도	A.V.E	개념신뢰도
경쟁의식	.956	.985
문화유입 수용성	.789	.916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656	.894
자국방어적 대응	.898	.959

4.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 모형에 설정된 각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에 포함된 4개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s)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indicators)의 표준화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의식’(.798~.921), ‘문화유입수용’(.459~.720), ‘합리적 분쟁해결

인식’(238~.710), 자국방어적 대응(.339~.875) 4개 주요변수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유의한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형 적합도(카이자승=2755.407, 자유도=91, p.000, TLI= .910, CFI=.930, RMSEA=.062)도 전반적인 기준을 대체로 잘 충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5. 원모형에 대한 직·간접 경로분석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각 경로들의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밝혀진 적합도와 동일하다(카이자승=2755.407, 자유도=91, p.000, TLI= .910, CFI=.930, RMSEA=.062). 원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원모형에 포함된 5개의 직접경로들 중에서, ‘문화수용성→자국방어적 대응’ 경로만 제외한 나머지 4개 직접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직접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경쟁심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혹은 중국인들이 자국에 외국문화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가질수록, 국가 간에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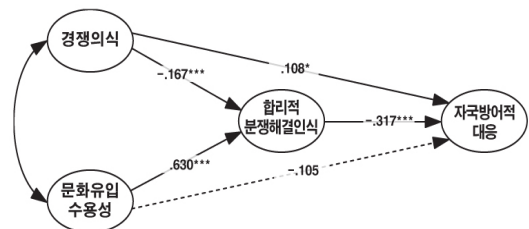


그림 2. 원모형 분석결과

둘째,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 강할수록,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국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자국방어적인 대응 성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화유입수용성과 자국방어적 대

응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유입수용성은 자국방어적 대응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이다.

원모형에 포함된 간접경로의 효과를 살펴보면, ‘경쟁의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 (.053, 하한값 .014, 상한값 .120) 그리고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 (-1.99, 하한값 -.363, 상한값 -.062), 이 두 경로에서 ‘합리적분쟁 해결인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 증가할수록,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로 하여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문화유입수용성이 비록 자국방어적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문화유입수용성이 증가할수록, 자국방어적 대응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문화유입수용성이 자국방어적 대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5. 전체모형 경로계수(N=695)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직접효과			
경쟁의식→합리적해결인식	-.167	-.091 (.025)	-3.582***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해결인식	.630	.520 (.080)	6.462***
합리적해결인식→자국방어적대응	-.317	-.724 (.190)	-3.809***
경쟁의식→자국방어적대응	.108	.136 (.055)	2.456*
문화유입수용성→자국방어적대응	-.105	-.198 (.146)	-1.362
간접효과			신뢰구간
경쟁의식→[합리적해결인식]→자국방어적대응	.053	.066	하한값: .014 상한값: .120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해결인식]→자국방어적대응	-1.99	-3.77	하한값: -.363 상한값: -.062

***p<.001, **p<.01, *p<.05

이상 원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중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한 결과이다.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한국인들에 대한 경쟁의식 및 문화유입수용성이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 뿐 만 아니라,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에서도 피력한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한 호감도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한류 호감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 분석

구조방정식모형(SEM)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한류호감도 수준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moderating)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카이제곱차이 검증결과(카이제곱=353.163 자유도=152 p.000 TLI=.908 CFI=.923, RMSEA=.044)는 기저모형과의 자유도 차이 10에서 카이제곱 차이값이 4.736으로 임계기준 18.31 미만으로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류 호감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3]과 [표 6]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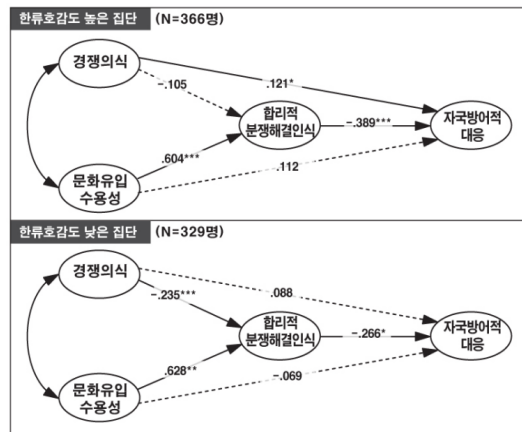


그림 3. 한류호감도의 조절효과 모형 분석

한류호감도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쟁의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 분쟁해결인식’ 그리고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등 세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지만, ‘경쟁의식→자국방어적 대응’, ‘문화유입수용성→자국방어적 대응’, 이 두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쟁의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와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에서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류호감도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경쟁의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가 유의하였다. 반면,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였던 ‘경쟁의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 분쟁해결인식’ 그리고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이 두 경로의 직접효과는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와 같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접경로 분석결과를 보면, ‘경쟁의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에서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는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와 같이 하유의하지 않았지만, ‘문화유입수용성→합리적 분쟁해결인식→자국방어적 대응’ 경로에서는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의 매개효과 (-.167, 하한값 -.353, 상한값 -.021)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효과 분석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두 독립변수인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 혹은 ‘문화유입수용성’은 종속변수인 ‘자국방어적 대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효과도 없었다. 연구모형에서 ‘자국방어적 대응’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합리적 분쟁해결인식’ 뿐이었다.

표 6. 한류호감도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높은 집단:N=366, 낮은 집단:N=329)

[직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SE)	표준화 추정치
	한류호감도 높은 집단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046 (.028)	-.105
문화유입수용성 →합리적인식	.440*** (.086)	.604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1.098*** (.312)	-.389
경쟁의식 →자국방어적대응	.151* (.072)	.121
문화유입수용성 →자국방어적대응	-.230 (.201)	-.112
[간접효과]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인식	.051	.041
문화유입수용→ [합리적인식] →자국방어적대응	-.484	-.235
간접효과유의성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하한값: -.008 상한값: .126	
문화유입수용→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하한값: -.472 상한값: -.088	
[직접효과]	한류호감도 낮은 집단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119*** (.036)	-.235
문화유입수용성 →합리적해결인식	.561*** (.111)	.628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652* (.290)	-.266
경쟁의식 →자국방어적대응	.109 (.088)	.088
문화유입수용성 →자국방어적대응	-.150 (.259)	-.069
[간접효과]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077	.062
문화유입수용→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366	-.167
간접효과유의성		
경쟁의식→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하한값: -.002 상한값: .168	
문화수용→ [합리적해결인식] →자국방어적대응	하한값: -.353 상한값: .021	

요약정리해보면, 한류호감도가 낮은 중국인들의 경우, 문화유입수용성이 높아질수록, 혹은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쟁의식'이 약화될수록, 중국인의 자국방어인식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효과)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류호감도가 높은 중국인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증가할수록, 자국방어적 대응이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 이들의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은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과는 다르게, 이들의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 증가할 경우, 자국방어적 대응 또한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들은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감소하는 현상은 없어,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발견된 현상과 상당히 대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하여, 문화유입수용성이 직접적으로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 뿐 만 아니라,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mediation)로 할 경우, 문화유입수용성이 증가할수록,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타문화가 중국사회에 유입되는 것에 중국인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중국인들이 자국과 다른 나라 간의 분쟁 및 발생할 경우, 진실(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자국방어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앞서 제시한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사실들 중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함의를 모색해보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

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대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요건으로 경쟁심을 언급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11][24].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국가간에 분쟁에 발생하였을 때, 중국인들의 자국방어적 대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 높아질수록,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해결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을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경쟁의식이 높아졌을 때, 중국인의 자국방어적 대응 양상이 보다 뚜렷해졌는데, 이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가 간 분쟁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현상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대처양상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둘째, 문화유입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뚜렷하였고,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높을수록 해당 상대국의 입장과 주장은 무시하고 불공정하더라도 자국(중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면서 자국방어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문화유입수용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국방어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 문화유입수용성이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을 매개로 하여 자국방어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드러났다. 즉, 한류 호감도가 높은 중국인들의 경우 합리적 분쟁해결인식이 매개요인(mediator)으로 작용된다면, 문화유입수용성의 증가가 자국방어적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합리적 분쟁해결이 유의미한 매개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한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류호감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한류호감도가 높은 집단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합리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였고, 자국방어적 대응 성향도 낮았고, 타문화가 중국사회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이 증진될 때,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자국방어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논의점을 종합해볼 때, 한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국인들의 합리적 분쟁해결 인식을 강화하고 자국방어적인 대응을 지양하게 하는데 설득력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한류콘텐츠 상품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강조되어왔지만, 문화적 교류 효과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아왔다. 최근 들어 특히 사드 및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양국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소통의 매개로 한류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기에, 중국인들의 대응 및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이 중국인에 한정되었기에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인식 및 대응 그리고 관련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명백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과정의 어려움으로 각 주요변인별 측정문항을 좀 더 세세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부분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강진석, "중국 언론의 한류(韓流)에 대한 시각과 대응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75권, pp.301-321, 2016.

[2] 이희진, "한류콘텐츠 이용정도가 중국인의 협한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류호감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이차매개효과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pp.394-405, 2017.

[3] 김신동, "동아시아의 초국적 문화수용과 타자 인식: '한류' 담론에 대한 성찰적 비평,"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pp.162-180, 2002.

[4] 이희진,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부정적 인식이 한 중 간의 합리적 분쟁해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입수용성의 매개효과와 한류콘텐츠이용정도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1-13, 2017.

[5] J. Straubhaar, "Beyond Media Imperialism: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8, pp.39-59, 1991.

[6] K. Iwabuchi, "Becoming Culturally Proximate: The Adolescent of Japanese Idol Dramas in Taiwan," In B. Moeran(Eds.), Asian Media Productions(pp. 54-74), UK: Curzon Press, 2001.

[7] 오미영, "일본 내 한류 수용과 타자 인식의 변화: <겨울연가>붐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0권, 제1·2호, pp.34-56, 2006.

- [8] 이희진, "중국인의 한국드라마 시청이 문화유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류호감 및 문화근접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82집, pp.427-455, 2017.
- [9] 강내영, "중국의 항(抗)한류 현상 연구: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43권, pp.457-508, 2009.
- [10] D. Anderson and J. Bryant, "Research on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The state of the art," In J. Bryant & D. Anderson(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levision: Research o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p.331-354, Academic Pr, 1983.
- [11] 이준웅, "한류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이용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5호, pp.5-35, 2003.
- [12] J. Shanahan and M. Morgan, *Television and its viewers: Cultivatio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3] 채지영, "일본 대학생의 대중문화 상품 소비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4권, 제3호, pp.235-255, 2003.
- [14] 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수용자의 드라마 여성 이미지에 대한 수용행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1호, pp.76-115, 2004.
- [15] 유세경, 고민경, *한국 TV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연구*, 중국 대학, 2006.
- [16] 유재웅, "한국 TV드라마 시청이 제작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일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홍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26-158, 2007.
- [17] 임형민, 박주연, "한류 콘텐츠인 드라마 시청 동기와 문화 선호도에 관한 연구: 중국과 일본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pp.371-395, 2011.
- [18] E. Schiappa, P. B. Gregg, and D. E. Hewes,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Vol.72, No.1, pp.92-115, 2005.
- [19] 이봉민, "집단 갈등 문제에 대비한 집단 간 간접 접촉 방법의 통합적 적용," 법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137-163, 2012.
- [20] E. Katz,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Study of Popular Culture," *Studies in Public Communication*, Vol.2, pp.1-6, 1959.
- [21] R. Linton,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36.
- [22] 차아오춘옌, *중국의 한류에 대한 태도 및 전망에 관한 이론적 연구: 드라마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3] T. Pettigrew,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9, pp.65-85, 1998.
- [24]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1954.
- [25] 유세경, 이경숙,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3호, pp.230-267, 2001.
- [26] 이희진, "중국인의 한국드라마 시청정도가 한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류 호감도와 문화유입 수용성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513-526, 2014.

저 자 소 개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한류, 영상산업, 영상콘텐츠제작